

## 실행력,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하는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의 키워드



발행인 류철상

“실행이 곧 전부다. 이것이 나의 지론이다. 아이디어는 과제 극복의 5%에 불과하다. 아이디어의 좋고 나쁨은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산위기에 몰린 닛산 자동차를 최고의 업체로 변화시킨 카를로스 곤 사장이 입버릇 처럼 강조하던 말이다. 즉, 성과는 아이디어의 좋고 나쁨보다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요즘 이와 같이 실행력이 성과를 좌우한다는 ‘실행력 리더십’이 각계각층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실행력은 민간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일선 지자체에도 절실하게 필요한 단어가 아닐까 싶다.

최근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고시」, 「순환골재 품질기준」,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 등 일련의 법률 및 정책·제도를 마련, 시행한 바 있다.

이는 과거 건설폐기물을 단순히 처리의 관점으로 다루던 폐기물정책이 국가 부존자원인 천연골재의 대체재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품질의 순환골재 생산 및 사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재활용의 관점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생산된 순환골재를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시 도로보조기층용 골재소요량의 10% 이상을 사용토록 규정한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고시’는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의 성장동력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마련되고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의 의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이 고시된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순환골재 의무사용대상 건설공사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사설계에 조차 순환골재 물량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순환골재 품질기준의 충족으로 이미 안정성이 입증되었음에도 순환골재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사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의 강력한 재활용정책이 일선 지자체의 실행력 부족으로 난관에 부딪치고만 것이다. 특히 순환골재의 인식제고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와 같이 순환골재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에서 국가 경쟁력 및 정책트렌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타상행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성군청과 같이 주민들의 반발을 설득해 가며 여러 건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를 사용한 사례는 일선 지자체의 실행력이 정부정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요인임을 다시

## - 순환골재 의무사용 고시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반영하지 않는 지자체 많아

## - 건설폐기물 재활용정책 성공여부는 일선 지자체 및 발주기관의 실행 의지가 관건

한 번 각인 시켜주고 있다.

홍성군청의 경우 '역사문화거리 조성공사', '월계천 주변도로 조성공사', '잠방골 소하천 정비공사' 등의 건설공사에서 도로보조기층용 골재소요량의 최대 30%까지 순환골재를 사용하였으며, 시공 후 안전성·예산절감차원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향후 5개년(2007~2011)동안 건설폐기물 재활용정책의 근간을 이루게 될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마련 지난 2006.12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동 계획은 건설현장에서 순환골재가 도로보조기층용 등의 고부가가치용도로 사용되는 실질재활용률을 현행 15%에서 2011년 30%까지 상향시키고 순환골재 사용의무 대상공사 및 용도를 확대하는 한편, 골재수급계획에 순환골재를 포함시키는 등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재활용 정책을 담고 있다. 또한 이들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10대 중점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정부, 행정기관, 발주기관, 처리업체 등의 정책 주체별로 연차별 수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금번 기본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되고 일선 현장마다 반영된다면 정부에서 추구하는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계획의 성공여부는 아이디어의 양과 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행력이며, 이를 위하여 각 주체별로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즉, 정부정책과 일선 현장의 정책수행이 괴리되어 발생하는 실행 갭(gap)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품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물가·유가인상, 인건비상승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더라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로 정부의 재활용정책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간처리업체가 조속히 안정화 된 가운데 성장·발전 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다시 새롭게 재창간되는 「녹색21」은 이러한 정부정책의 실행 갭을 최소화시키고 고품질의 순환골재 생산과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간처리 기술의 소개 및 일선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순환골재 활용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업계의 숨통을 조이는 과도한 중복규제, 불편부당한 입찰행위 및 행정행위 등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지적해 나갈 것이다.

또한 「녹색21」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정책에 실행력을 불어넣는 생동감 넘치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